

유격수 김선빈

① 김선빈·안치홍 KIA 키스톤 콤비 오키나와 맹훈련

방망이는 댔고...수비 또 수비

KIA의 '꼬꼬마 키스톤'이 자신감 회복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주전 선수들의 부상과 부진이 겹친 2012시즌, 김선빈과 안치홍은 KIA 타선의 희망이었다.

톱타자 이용규가 가나니 슬럼프에 고전하는 동안 김선빈은 124개의 안타를 때리며 0.281의 타율을 남겼다. 63득점, 55타점, 30도루 그리고 5개의 홈런도 날리며 '강한 2번 타자'로 맹활약했다. 타율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신의 역대 최고 성적이다.

부상병 형들을 대신해 중심타선에 배치된 안치홍은 0.288의 타율과 함께 141개의 안타와 64타점을 기록하며 팀내 최다 안타, 최다 타점 자리를 차지했다. 2년 연속 도전했던 3할 고지를 밟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안타, 타점, 2루타(31개), 도루(20개) 기록 등을 갈아치웠다.

주전 선수로 인정받을 만한 성적이지만 김선빈과

캠프 목표는 자신감 회복 철벽수비로 팀 승리 지키고 태극마크 함께 달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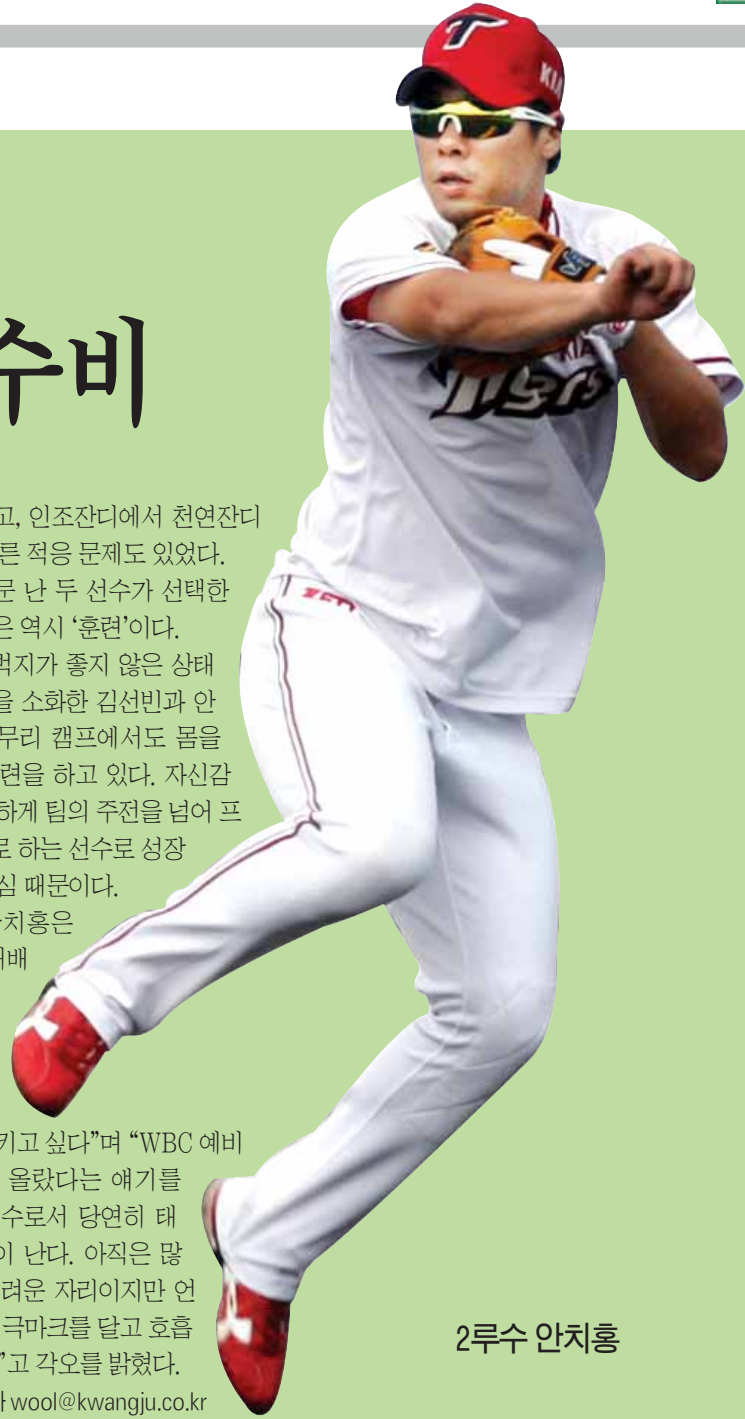
안치홍은 자신의 2012시즌이 불만이다. 공격에 미치지 못했던 수비 때문이다. 김선빈은 "도루도 30개를 채웠고 3할을 꼭 하고 싶었는데 후반기 초반에 슬럼프가 오면서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무엇보다 수비에서 만족스럽지 않다. 뭔가 안정되지 못했다. 불안한 모습이었다"고 자평했다. 안치홍도 수비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안치홍은 "타격에서는 나름대로 괜찮은 성적을 냈다. 홈런에 대한 부분도 크게 아쉽지는 않다. 하지만 수비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해였다. 실수도 잦았고 이를 신경 쓰다보니 마음이 급했다"며 "그래서 이번 캠프의 목표를 자신감 회복으로 세웠다"고 말했다.

공격은 물론 2루수와 유격수로 수비의 중심에서 있는 만큼 두 선수의 어깨가 무겁다. 올 시즌 심리적인 부담감에 보이지 않은

실책이 이어졌고, 인조잔디에서 천연잔디로의 교체에 따른 적응 문제도 있었다. 특히 홈런도 소문 난 두 선수가 선택한 문제 해결방법은 역시 '훈련'이다. 종아리와 허벅지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풀타임을 소화한 김선빈과 안치홍이지만 마무리 캠프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고 훈련을 하고 있다. 자신감을 채우고 담당하게 팀의 주전을 넘어 프로야구를 대표로 하는 선수로 성장하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다.

김선빈과 안치홍은 "실수가 팀의 패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내년에는 안정된 수비로 팀의 승리를 지키고 싶다"며 "WBC 예비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다. 프로선수로서 당연히 태극마크에 욕심이 난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어려운 자리이지만 언젠가 꼭 함께 태극마크를 달고 호흡을 맞추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루수 안치홍

지왕·인왕리그 4강 팀 가린다

27·28일 무등기 사회인야구

무등기 사회인야구 대회 5주차 경기가 펼쳐진다.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제2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5주차 경기가 27·28일 본량구장과 무등중학교 야구장에서 열린다. 27일 본량구장에서는 지왕리그 8강전이 전개된다. 오전 8시 효인요양병원 헬리우스가 제일공조와 8강 대결을 벌이고 상무카오디오는 오전 10시 디스커스와 맞붙는다. 무등중학교 야구장에서는 오후 1시30분부터 인왕리그 8강전이 펼쳐진다. 삼호 의료재단과 아도니스가 대결을 벌이고 포프리와 판13도 인왕리그 4강 티켓을 놓고 격돌한다. 28일에는 본량구장에서 인왕리그 마지막 4강 두 팀이 가려진다. 오전 8시 청연한방병원과 불투사의 경기가 펼쳐지고 오전 10시부터는 나이너스와 워리어스3부가 대결을 갖고 4강행을 다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도민생활체육전 개막 제24회 도민생활체육대회가 25일 화순공설운동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3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대회에 참가하는 22개 시·군과 서울시생활체육회 동호인 등 5300여 명은 오는 27일까지 21개 종목에서 대결을 벌인다.

‘육탄전’

광주 FC 내일 인천과 K리그 37라운드 승리 못하면 꼴찌 추락...벼랑끝 승부



강등권 위기의 광주가 운목으로 승점 3점을 노린다. 광주 FC가 27일 오후 3시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K리그 37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31라운드부터 운명의 스플릿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만 아직 자력으로 승점 3점을 챙기지 못했다. 앞선 성남과의 홈 경기에서도 박기홍의 선제골과 이승기의 그림같은 역전골이 나왔지만 경기는 2-3 패로 끝났다. 반면 유일한 하위팀 강원대구가 3-0 승리를 거두면서 광주(승점 33)와 강원(승점 32)의 격차는 1점 차로 줄어들었다. 여기에 강원대구가 이번 라운드에서 상무를 만나기 때문에 자동으로 승점 3점(물수승)을 추가한다. 광주가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최하위로 물러앉게 된다. 절박한 승부를 앞두고 있지만 상황이 좋지는 않다. 인천과의 역대 전적은 3무 1패. 지난 4번의 맞대결에서 3골을 넣고 4골을 쏘다. 슈팅 38대 39, 유효슈팅 19대 17, 점

유율 48대 52로 힘겨투기를 했지만 승리와는 인연이 없었다. 또 최근 안정적인 수비를 선보였던 이한샘(경고누적)과 노형석(경고 2회 퇴장)이 결장한다. 주장 김은선이 복귀를 준비하고 있지만 부상 공백으로 인해 100%의 컨디션을 담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주가 기대를 거는 것은 박기홍을 중심으로 한층 매서워진 공격력이다. 부상을 털어낸 박기홍은 스플릿 리그에서 3골을 기록하는 등 공격 본능을 발휘하고 있다. 이승기 역시 대표팀에 다녀온 이후 패조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 지난 라운드에는 혼자서 수비수 3명을 따돌리고 골을 성공시키는 등 공격에 물이 올랐다. 반면 인천은 그들 B선수를 달리고 있지만 2경기 연속 골맛을 보지 못했다. 앞선 전남과의 경기에서도 90분간 2개의 슈팅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이 무디어졌다. 날카로운 창을 앞세운 광주는 '육탄전'으로 승리를 노리겠다는 각오다. 절벽을 눈앞에 두고 어려운 상대를 만난 광주가 절박함으로 승점 3점을 만들 어낼 수 있겠는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우승 노리는 팀서 뛰고 싶다”

MLB 클리블랜드 추신수 귀국

“윈손투수 극복방안 마련”

내년 시즌을 마치고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 '추추 트레인' 추신수(30)는 "이기는 팀에서 뛰고 싶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추신수는 미국프로야구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2012년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5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추신수는 이후 자리를 옮겨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을 받아 "변수가 워낙 많아서 분명한 답을 드릴 수 없지만, 한가지 명확한 것은 이기는 팀에서 뛰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는 이기는 팀, 강한 팀, 우승을 노리는 팀에서 뛰고 싶다"고 덧붙였다.

추신수는 내년 3월에 열리는 제3회 월드베이스클래식(WBC) 출전 여부에 대해서는 "나라를 위해 뛰고 싶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하지만 새 감독인 테리 프랑코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장담을 못하겠다"고 했다. 올 시즌 윈손 투수에게 타율 0.327, 홈런 14개로 강점을 보였던 추신수는 윈손 투수만 만나면 타율 0.199에 2홈런으로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6월 윈손 엄지를 맞고 수술을 받아 부상 트라우마가 생긴 데다 집요하게 몸쪽으로 파고드는 윈손 투수들의 볼 배합에 타격 리듬을 잃었기 때문이다. 추신수는 한 달 가까이 국내에 머물면서 한국시리즈 3차전 시구자를 맡는 등 대외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동시에 스포츠 심리학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 윈손 투수 극복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미국 프로야구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활약 중인 추신수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포토타임을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도마의 신’ 양학선 아시아선수권 불참

‘도마의 신’ 양학선(한체대)이 다음달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체조선수권대회에 나서지 않는다. 대한체조협회는 다음달 7일부터 중국 푸티안에서 열리는 아시아선수권에 베테랑 선수들 대신 김한솔(서울체고) 등 유망주들을 내보내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아시아선수권에는 김한솔 등 남자 선수 6명과 허선미(남녕고) 등 여자 선수 6명이 출전한다. 이로 인해 오랜만에 국제무대에 복귀하는 북한 남자체조의 간판 리세공과 양학선의 맞대결도 무산됐다. 북한은 2010년 로테르담 세계선수권대회 참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여자 선수의 나이를 이전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 적발돼 국제체조연맹(FIG)으로부터 2년간 국제대회 출전금지 조치를 받았다. 북한 체조는 올해 런던올림픽에도 출전하지 못했지만 지난 5일 국제대회 출전 금지 징계가 해제돼 다시 국제무대에서 경기를 펼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광주 생활체육 한마음 축제 내일 월드컵보조 경기장 등

광주생활체육동호인들이 가을 맞이 축제를 벌인다. 제24회 광주시장기 생활체육 한마음 축제가 27일 월드컵보조 경기장 등 광주시 일원에서 열린다. 광주시생활체육회 주최, 광주시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6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18개 종목(일반 13, 민속1, 화합경기 4종목)에서 열전을 펼친다. 27일 오전 10시 자치구별 임장식 폐레이드와 함께 축제가 시작되며 5개구 자치구 대표선수들은 축구, 배드민턴 등 화합경기를 하며 경쟁과 화합의 시간을 갖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장애인생활체육 화합·축제 내일까지 빛고를 체육관 등

장애인생활체육인들의 화합과 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진다. 제6회 광주시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이 26일 오전 11시 영주 빛고를 체육관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27일까지 영주체육관, 절단게이트볼장,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계속된다. 이번 대회는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며 1900여명의 장애인 생활체육동호인이 참가해 배드민턴·탁구 등 정식종목 8개, 화합종목 11개 등 총19개 종목에서 대결을 벌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